

기름값 얼마나 더 내리고 제수용품 얼마나 더 오를까

휘발유 가격이 34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전반적 하락세는 주춤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침체로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연속 내리며 3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광주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1.29원 하락한 1338.5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다섯째주 1683.03원을 기

광주·전남 휘발유값

국제유가 인상 하락폭 주춤

34개월만에 최저치

광주 11원 하락 1338원

록한 뒤 11주간 344.49원이나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넷째주(1337.60원) 이후 34개월여만에 최저치다.

다만, 주간 하락폭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가장 작았다.

전남지역 역시 이달 셋째주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350.37원으로, 전주보다 9.76원 내리는 것에 그쳤다.

자동차용 경유는 광주가 1239.41원으로 한주만에 10.95원 내렸고 전남은 1249.61원으로 10.34원 하락하는 것에 멈추면서 최근 하락세도 주춤하는 상황이다. 모처럼 내린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도 나온다.

이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러시아 갑산 이행 발언과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고조 등으로 인해 상승,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보다 배럴당 1.1달러 오른 59.4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 국제유가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상여파가 반영될 경우 주유소의 기름 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 명절을 앞두고 배와 사과 등 일부 제수용품 가격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서민들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연시를 틈타 외식업체와 식품업체가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택시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설 차례상 예상비용도 20만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설 차례상 차림비용 1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28개 제수품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차림비용이 25만3999원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년수준 가격을 유지하는 채소류와 축산물, 수산물을 제외하고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배 등 설 앞두고 가격 크게 올라 차례상 비용 2.1% 상승 외식물가도 비상

폭염과 냉해 등의 기상이변으로 사과, 배 등 차례상에 쓰이는 과일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가격이 하락한 대표적 품목인 계란(-17.5%)과 시금치(-15.1%)과, 배추(-13.1%)의 하락폭보다 배(31.1%), 대추(26.3%), 쌀(21.8%), 사과(11.7%) 등의 상승폭이 더 커 전반적인 차례상 비용이 올랐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급

증하면서 성수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자 관계기관들도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설 명절 2주 전부터 평시 대비 농산물은 1.7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8배를 확보 공급하고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와 특판장 등 장터 개설을 확대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역시 설 명절기간 광주지역 내 88개 복지시설과 단체에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3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에게는 1세대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준 금리 인상에 저금리 대출 절반 줄어

연 3% 미만 대출 10.9%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돌아서면서 연 3%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연 3.0%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10.9%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20.7%)의 절반에 그치는 셈이다. 2년 전 같은 달(44.4%)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14년 중반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금리 3% 미만 대출은 기준금리가 점차 떨어지며 2015년 이후 흔해졌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내려간 직후인 2015년 4월 3% 미만 대출의 비중은 66.7%로 치솟았다.

2016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내리며 대출 금리는 더 낮아졌다. 그해 8월 금리가 연 3% 미만인 대출이 신규 대출의 75.9%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2017년 6월 금리 인상 감뎡이를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준금리 인상 예고가 시장 금리에 선반영되면서 2017년 7월 3%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비중은 22.4%까지 떨어졌다. 그해 12월에는 16.0%로 20% 미만으로 내려앉았다. 작년에는 11월까지 내내 20%대로 올라서지 못했고 한은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연합뉴스



타로 카드 새겨진 '프로페시' 와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와인매장에서 타로 카드가 새겨진 '프로페시'(Prophesy-에인) 와인 5종을 선보였다. 새로 출시한 와인들은 레이블에 각각 승진·성공, 시작·도전, 사랑·연인, 탄생·생일, 위로·치유의 의미를 담은 타로 카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자동차 시장 SUV 대세

지난해 수출 6.7% 증가

올해 쏘울 신모텔·SP2 가세

자동차 시장의 수출 부진에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성장세를 보였던 한해였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업체의 SUV 수출량은 138만6539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의 59.2%에 이른다.

같은 기간 승용차 전체 수출물량(234만 1320대)은 전년 동기(241만5948대) 대비 3.1% 줄어들었다.

특히 소형차 수출 물량은 46만9530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감소했고 중형차 수출도 10만8891대로 23.0%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SUV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수출이 늘면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 순위 10개 모델 중 7개가 SUV에 달할 정도였다. 한국지엠(GM) 트랙스(23만9800대)로 1위에 올랐고 현대차 투싼(22만8461대), 현대차 코나(20만2779대), 쏘울(14만7870대), 스포티지(14만5089대) 등의 순이었다.

올해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본격적으로 수출길에 오르고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쏘울 신모텔에 새로운 소형 SUV SP2(코드명)까지 가세하면서 SUV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매 유통업체도 새해 경기 부정적

경기침체·인건비 상승 영향 67개 업체 경기전망지수 92

소매 유통업체도 새해 부정적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경기전망을 어둡게 봤다는 점에서 지역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6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22포인트 하락한 92로 집계됐다.

RBSI는 100을 넘으면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상의는 설 명절이라는 계절 호재에도 경기 불황, 소비침체, 비용부담 가중 등 소형 유통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1분기 RBSI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체별로 백화점(125)은 호전을, 대형마트(90)·편의점(72)·슈퍼마켓(80)은 위축을 각각 전망했다.

백화점은 겨울의류 판매와 설 특수기 대감으로 전반기(200)에 이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의무 휴일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은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 최

저임금 상승 등으로 매출 부진을 우려했고 슈퍼마켓도 최저임금 상승과 상권 경쟁 등으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놔다.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는 규제 완화(59.7%), 제조업 수준 정책지원(13.4%), 전문인력 양성(3%), 신기술 개발 및 사업과 지원(1.5%) 등이 꼽혔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설 명절 대목에도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 활력은 높이고 소매 유통업계 경영 부담은 낮추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로도복권 (제84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4	26	32	36	39	42	3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35,475,025		10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80,772,819		42	
3	5개 숫자일치		1,663,786		2,039	
4	4개 숫자일치		50,000		103,190	
5	3개 숫자일치		5,000		1,735,911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 GOOD! 흡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 각종 미네랄
이온, 실크 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